

COACHING STAFF



GK



DF



MF



FW



NEXT HOME MATCH UP



VS



K LEAGUE 2 | 15R

2018. 7. 14(토). 19:00 이순신종합운동장

아산 무궁화 FC

대전 시티즌



TODAY MATCH UP
K LEAGUE 2.

15R | 2018. 6. 6(수). 19:00
이순신종합운동장



아산 무궁화 FC

VS



성남 FC

16R | 2018. 6. 9(토). 19:00
이순신종합운동장



아산 무궁화 FC

VS



서울 이랜드



전역자들의 '라스트 스퍼트'

남자들은 알겠지만 전역은 인생에서 대단히 특별한 이벤트다. 조국의 부름을 받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더 큰 사람이 되어 사회로 돌아가는 때이기 때문이다. 복무할 땐 '그날'이 언제 올지 손꼽아 기다리다가도, 정작 전역이 눈앞에 다가오면 왠지 모르게 아쉽고 시원섭섭하다. 아산 무궁화에도 바로 그런 이들이 있다. 박형순·이으뜸·이창용·이재안·한의권 등 1097기 선수들이다. 정든 아산 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점 때문에 못내 아쉽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래서 이번 2연전은 무조건 승리해 좋은 추억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공동 질문 1. 전역을 앞둔 소감은? 2. 아산에서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가? 3. 정들었던 아산 팬들에게 남기고픈 말은?



1. "빨리 전역하고 싶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아쉽습니다. 감독님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와 구단 프런트들이 정말 친절하시기 때문입니다. 복무 신분만 아니면 더 함께 하고 싶습니다(웃음)."
2. "여유와 노련미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실력이 검증된 선수들과 뛰다 보니 정말 성장한 것 같습니다. 시야도 넓어졌습니다."
3.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불러주시니 힘이 절로 났습니다. 비록 떠나지만, 마음으로는 최고의 팀, 최고의 팬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 "벌써 전역이라니 기분이 묘하게 시원섭섭합니다. 좋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기에 행복했습니다. 우리 1097기를 만나 영광이었습니다."
2. "좋은 선수들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많이 배웠습니다. 끈기와 인내 등 멘탈적으로 특히 강해졌다고 봅니다."
3. "늘 저희들을 위해 힘차게 응원해주시고 뒤에서 지켜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 소속팀으로 돌아가지만,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역이라 설레고 기분이 좋다.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합니다. 좀 더 좋은 성적을 남겨두고 떠나고 싶었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아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경기는 최선을 다해 이기고 싶습니다."
2. "좋은 선수들과 함께 하다보니 경기를 살피는 시야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또, 주장으로서 책임감도 많이 배웠어요. 다른 팀에서도 이런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3. "아산이라는 지역이 참 좋아졌어요. 복무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이 팀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팬들이 내 마음 속에 정말 각별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시민구단이 창단되어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함께 하고 싶습니다."



1. "아직 솔직히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 막상 전역하면 아쉽기도 합니다.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시원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2. "항상 여러 선수와 함께 생활하면서 좋은 영향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멘탈적으로 특히 그렇습니다. 은퇴하고도 제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우리 기수 선수들은 '정말 이 팀에 잘 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팬들에게 진심 어린 애정을 받았기에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꼭 승리를 안기고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시원섭섭이 아니라 섭섭시원 같습니다. 코칭스태프·선수들과 오랫동안 함께 해선지 정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섭섭이 시원보다 먼저인 것 같습니다."
2. "박동혁 감독님이 절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경기를 많이 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3. "지난 두 시즌 동안 절 정말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전역한 후에도 더 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6. 6 아산 무궁화 FC vs 성남 FC
6. 10. 아산 무궁화 FC vs 서울 이랜드

성남전 역대 전적

6전 1승 1무 4패 2득점 6실점

서울 이랜드전 역대 전적

5전 2승 2무 1패 6득점 4실점

KEY PLAYER

FW 한의권



홀 2연전은 팀의 순위를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다. 그런데 대전 시티즌·부산 아이파크를 상대했던 지난 12·13라운드에서는 도리어 거꾸러졌다. 1무 1패라는 매우 아쉬운 결과를 남겼는데, 그때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안 된다. 지난 14라운드 수원 FC 원정에서 2-0 완승을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만큼 그 여세를 이번 홀 2연전에서는 반드시 이어나가야 한다.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을 위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차출된 주세종의 공백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최고의 경기를 선보일 수 있는 많은 선수들이 박동혁 감독의 출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의욕을 가질 선수들이 있다. 바로 이 2연전을 끝으로 팀을 떠나게 될 고창 5인방이다. 앞선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 아산 소속으로는 마지막 경기라는 점에서 매우 큰 동기 부여를 느끼고 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선수는 공격수 한의권이 다. 지난 수원 FC전에서 골을 터뜨려 컨디션이 좋다. 이번 2연전에서도 득점포를 기대하게 한다.

PLAYERS POSITION

4-4-2

